

#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李 善 雄

1. 머리말
2. 한자어에 관한 기본적 논의
3. 관형명사의 특성과 문법 범주
4. 관형명사 사용의 기제
5. 관형명사 범주 식별의 실제

## 1. 머리말

국어의 한자어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한자어 내부는 한문 문법 속에서는 통사적 구성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어 문법 속에서는 형태적 구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자어의 형태적 구성과 고유어 형태적 구성은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아래의 (1)에서 보듯이 고유어의 형태론에서는 국어의 자연적인 어순인 '목적어+서술어'의 순서가 주류이고 '서술어+목적어'의 순서는 드물지만,<sup>(1)</sup> 한자어의 형태론에서는 정반대이다.<sup>(2)</sup>

- (1) 가. 꽃꽂이, 줄넘기, 장보기, 체육볶음  
나. 讀書, 植木, 集塵, 避難

- 
- (1) '볶음김치, 튀김새우' 따위의 말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말들은 단순히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미 관계 이상으로 김치나 새우의 특정한 종류 또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1)의 예와는 의미상으로 구별된다.
- (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자어 형태론과 고유어 형태론을 이원적 체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송기중(1992), 김규철(1997) 등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익섭(1968), 노명희(1998)은 단일한 원리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모두 다루려는 일원적 체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도 통사적 구성을 이루면 고유어 통사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폐수 처리, 물질 분해, 국어 교육'이라고는 해도 '(\*)처리 폐수, (\*)분해 물질, \*교육 국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sup>(3)</sup> 요컨대 한자어를 결합하는 일은 국어 고유어의 통사 규칙을 따르므로 별도의 파악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자어의 형태론은 고유어의 형태론과 구별되므로 별도의 체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자어가 고유어의 통사 규칙에 따라 국어 문장을 구성한다고 해도 그 통사 구성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의 특성까지 고유어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영옥(1994)에서 '관형명사'라고 이름을 붙인 요소이다. 송기중(1992:72-73)에서 인식의 발단이 이루어지고, 김영옥(1994:100)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한 이 개념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4)<sup>(4)</sup>에서 '형성소'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규정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형성소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나 통사적 구 구성을 만드는 데에만 쓰는 요소라고 정의하고는 형성소가 구 결합에 쓰일 때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므로 그 뜻풀이도 관형사적으로 하었다고 명시해 놓았다.<sup>(5)</sup> 관형사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정의에 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정의는 결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정의는 어근<sup>(6)</sup>과의 변

(3) '처리 폐수'와 '분해 물질'을 각각 '처리된 폐수', '분해된 물질' 혹은 '다른 것을 분해하는 물질'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를 괄호 속에 넣었다.

(4) 이하 연세(1998)로 줄여 쓴다. 아울러 앞으로 종종 인용될,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줄여 쓴다.

(5) 국어에서 한자어가 아닌 형성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고유어의 '알뜰'과 외래어의 '인스턴트'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6) 여기서 '어근(root)', '어기(base)', '어간(stem)'의 개념 규정에서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지금은 Bloomfield(1933)에서처럼 '어근'을 굴절 접사가 붙는 '어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지만, 아직도 '어근'과 '어기'에 대해서는 개념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익섭(1968)은 '어기'를 접사가 붙는 요소로, '어근'을 굴절 요소가 붙을 수 없는 비자립적 어기로 규정한다. 이는 Hockette(1958)의 어근 개념과 Bloch & Trager(1942)의 어기 개념을 종합하여 재정의한 것으로 '어간'과 '어근'을 교집합 없이 나누고 '어기'라는 용어로 그 둘을 묶고 있다. 곧 '어기'는 단순한 용어일 뿐이다. Bauer(1983:20-22)에서 접사가 붙는 요소를 '어기'로 규정한 것은 이익섭(1968)과 같으나, '어근'의 개념 규정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untouchable'에서

별력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區別'이라는 한자어에서 '區'이든 '別'이든 형성소의 정의에 모두 해당하지만, 이 두 한자는 단어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어근으로서 절대로 국어에서 통사 원자(syntactictic atom)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성소의 개념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말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 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2) 가. 簡易: 간이 식당, 간이 영수증, 간이 세금 계산서, 간이역  
 나. 救急: 구급 약품, 구급 소방차, 구급 의료 기구, 구급차  
 다. 國際: 국제 단체, 국제 협약, 국제 여성의 날, 국제법  
 라. 退院: 퇴원, 퇴학, 퇴출, 퇴진, 퇴근, 퇴사, 퇴직, \*퇴 병원  
 마. 微溫: 미온적, 미온하다, \*미온 태도, \*미온 처리

위의 예 '簡易, 救急, 國際'는 형성소이고 '退, 微溫'은 어근이다. 형성소는 통사적 구성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어근은 통사적 구성을 만들지 못함을 알 수 있다.<sup>(7)</sup>

의 'touch'가 Bauer(1983:21)에서는 어근으로 규정되는 반면 이익섭(1968)의 개념 설정에 따른다면 어간으로 규정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익섭(1968)은 'touch'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간이라는 입장이고, Bauer(1983)은 같은 요소인 'touch'라도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는 '어근'이고 굴절의 측면에서는 '어간'이라는 입장이다. 곧 이익섭(1968)의 주장은 '항목주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으로서 體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Bauer(1983)의 주장은 '용도주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으로서 用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한편 자립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근'을 접사나 다른 어근이 붙는 단어 형성의 중심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191)을 비롯한 많은 논저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견해인데, 이러한 논저들에서는 대체로 '어근'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특징이다.

크게 보아 세 갈래의 주장으로 나뉘는 '어근', '어간', '어간'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 글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기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어근'을 이익섭(1968)이 제시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형명사'를 접사가 아니고 조사나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면서도 단어 형성에서만 쓰이는 요소로 보려는 관점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요소에 붙일 만한 간결한 이름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익섭(1968)의 '어근' 개념을 단지 용어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남기심·고영근(1993)의 체계에 따라 말하자면 '비자립적인 어근'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체계 내에서 비자립적인 어근은 대체로 불규칙적인 분포를 가지는 데 반해 '관형명사'는 상당수가 규칙적인 분포를 갖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한편 '형성소'라는 범주 자체도 어정쩡한 개념임이 지적되어야 한다. 김창섭(1999:23)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접두), (접미)'의 표기법과 같이 '(형성)'을 표기한 것은 이들 무리의 형태를 단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띄어 쓸 뿐 아니라 통사적 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단어로 보았다면 품사를 주지 않은 것은 사전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실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형성소'라는 용어를 버리고 '관형명사'라는 용어만 사용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2)의 '簡易, 救急, 國際'와 같은 관형명사에 포함될 수 있는 형태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범주를 규정하는 데에 있다. 그동안 관형명사에 관해서는 한자어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김영옥(1994)와 노명희(1998)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분류가 행해졌지만 이들은 관형명사의 전체 목록 작성에는 관심이 없었다.<sup>(8)</sup> 실상 언어 자료에서 모든 관형명사를 가려내는 일은 품이 많이 드는 단순 노동의 문제로서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관형명사에 대한 이론적인 천착과 함께 그 목록을 최대한 완전하게 보이는 일도 수행하려고 한다.

## 2. 한자어에 관한 기본적 논의

관형명사를 포함한 모든 한자어의 논의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한문(한자)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직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한 차이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國際'는

(7) '간이역, 구급차, 국제법' 등은 '형성소+명사'의 통사 구성이 합성어로 굳어진 것이다.

(8) 필자가 현재까지 찾아낸 관형명사는 총 430여 개이므로 연세(1998)에 실린 전체 형성소 180여개보다 2.5배가량 많다(연세(1998)의 형성소 총목록은 구소령(2000)에 실려 있다). 필자의 자료는 김창섭(1999)의 자료에 상당수를 더하고 빼는 것으로 좀 더 엄밀하게 선별한 것이다. 한편 구소령(2000)에서는 그가 찾은 모든 관형명사의 분류 작업을 행한 바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형명사가 아닌 항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일차적인 참고 자료로서는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대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절대로 자립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나 ‘극한 상황, 극한 행동’ 등에서의 ‘極限’, ‘급진 세력, 급진 정책’ 등에서의 ‘急進’, ‘특수 이론, 특수 세금’ 등에서의 ‘特殊’ 따위는 비록 관형명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다음 예에서 보듯이 자립적인 명사로 쓰이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은 않다.

- (3) 가. 사막의 극한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
- 나. 급진을 표방하다(연세 1998에서의 ‘급진’의 예)
- 다. 특수와 보편의 양면(연세 1998에서의 ‘특수’의 예)

심지어 관형명사보다 더 비자립적인 어근 범주에 속하는 요소조차 자립 명사로 쓰이는 예를 볼 수 있다.

- (4) 가. 莊嚴을 위하여, 莊嚴과 기백(『표준』에서의 ‘장엄’의 예)
- 나. 일신의 便安만을 생각하다(『표준』에서의 ‘편안’의 예)
- 다. 의원은 矜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TV 연속극 “허준”에서)

『표준』에서는 ‘장엄’과 ‘편안’이 (4가, 4나)의 용례에 근거하여 명사로 처리되어 있고 (4다)에서는 ‘공홀’이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말들은 관형명사로도 쓰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지위를 ‘장엄하다, 편안하다, 공홀하다’의 어근으로 봄이 타당하다.<sup>(9)</sup> 그렇다면 (4)에서와 같이 자립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러한 쓰임이 가능한 것에는 언어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반 언중은 자립 명사로 쓰지 않는 요소를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립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의 수필을 보면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할 것 같은 한자어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직관의 문제는 어떠한 한자 어근에도 적용된다. 심재기(1987), 송기

(9) 김창섭(1999:17)에서는 ‘편안’과 더불어 ‘汨沒’도 비자립적 요소로서 단어의 자격을 주기 어려운 부류의 예로 보고 있다.

(10) 위의 ‘장엄’의 용례도 김진섭의 “인생 예찬”과 이승녕의 “대학가의 파수꾼”에서 뽑은 것이다.

중(1992)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국어의 어떤 한자어는 특정 집단의 사람과 특정 영역에서만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sup>(11)</sup>

(5) 가. 天을 숭상하다

나. 父. 母. 弟. 姉. 妹

다. 시는 知와 情과 意를 내용의 삼 요소로 한다.

(5가)에서 보듯이 '天, 地, 人'과 같은 말은 한문이나 한자에 익숙한 사람에게서 자립 명사일 수가 있다. 한편 (5나, 5다)에서 보듯이 '父, 母'와 같은 말은 이력서나 의고적인 법률 문장 따위의 문맥에서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고 '知, 意'와 같은 말은 시학 등의 전문 영역에서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심재기(1987)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에서 쓰이는 모든 한자 하나 하나를 잠재적인 명사로 보아 국어사전에서도 뜻풀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5)와 같은 한자들의 범주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김창섭(1999:18)에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편안, 골몰'과 같은 말은 잠재적인 명사로 인정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연세(1998)에서의 처리처럼 말뭉치를 이용하여 어디에선가 조사를 달고 쓰인 예가 있으면 자립 명사로 처리하는 방식은 단순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어에 자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문맥의 형태가 자립적으로 쓰인 용례가 나오는가 여부인데, 말뭉치에 크기에 따라 그러한 용례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서 보았던 (4다)의 '矜恤'은 연속극 "허준"의 대본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자립적인 용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한자어의 자립성

(11) 송기중(1992:47-48)에서는 제한적 언중의 발화에서만 자립 형식의 기능을 갖는 형태소들과 자립 형태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어 언중들이 자립 형태소로 착각하는 형태소들이 있음을 밝히고 전자를 제한적 자립 형태소, 후자를 의사 자립 형태소로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구분이 비록 언어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父, 母'는 이력서나 법률 문장 따위에서만 자립성을 획득하는 제한적 자립 형태소로 볼 수도 있고 송기중(1992)에서 주장한 대로 의사 자립 형태소로도 볼 수 있어,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불분명한 면도 없지 않다.

판단은 우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말뭉치를 이용하는 일은 말은 쉬워도 방법론이 정밀하지 못하면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는 형태론에서 말하는 생산성(productivity)의 계량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최근의 말뭉치 언어학에서도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한 방법론이다.<sup>(12)</sup>

필자가 관형명사 목록을 작성함에는 필자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자립 명사로 쓰일 수 없는 목록들이지 한문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그중 어느 것들은(아니 심지어는 전부 다) 자립 명사일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한다. 위의 기본적 논의에서 주장하였듯이 국어의 한자어는 모두 잠재적인 명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가능한 많은 말을 관형명사로 처리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앞으로 속아낼 만한 것을 가리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3. 관형명사의 특성과 문법 범주

관형명사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어떤 명사 앞에서 관형어적으로만 쓰인다. 둘째, 그 자신은 자립적이지 않아 조사 따위가 통합되어 쓰일 수 없다. 셋째,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아래의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가. 國際 문제. 當面 과제

나. \*국제를 지향하다. \*당면을 걱정하다

(12) Lieber(1993:4)에 소개된 Baayen(1989)의 생산성 계량화 방법에 따르면, 어떤 접사의 생산성(P)은 그 접사가 붙은 단발어(hapax)의 수(n)를 그 접사가 붙은 표징어(token)의 수(N)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즉 "P=n/N"인 것이다. 물론 이 수식에서 결과로 나온 분수 자체의 절대치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상대치만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직 이 수식이 조잡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과문 탓이겠지만 우리나라 말뭉치 언어학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계량적 연구는 이 정도의 수준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듯하다. Baayen(1989)의 생산성 계량화를 관형명사에 관한 논의에 적용하면 n은 문제의 요소가 만들어 내는 단발적 통사적 구성의 수, N은 문제의 요소가 포함된 모든 통사적 구성의 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국제. \*경제의 당면

그러나 때로는 조사 '(으)로'나 의존 형용사 '이-'가 통합될 수 있다.<sup>(13)</sup>

- (7) 가. 簡易로, 高價로, 臨時로, 絶代로  
 나. 高價이다, 固形이다, 共通이다, 積極이다  
 나'. 매사에 열심이다. 만난 것은 여기에서이다  
 나". 그가 떠난 것은 내가 미워서이다.  
 나"". 그가 "맛있는걸."이라고 말했다.

(7가)는 'X-(으)로' 형식의 말들인데, '(으)로' 앞의 어기를 반드시 명사라고 할 수는 없고 '故로, 實로'와 같은 부사 파생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부사어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 부분을 임시적으로 명사로 간주하고 '(으)로'를 붙인 것이 그대로 국어에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창섭 1990:97 참조).<sup>(14)</sup> (7나)는 'X-이다' 형식의 말들인데, (7나')에서 보듯이 국어에서 '이-' 앞의 형태는 명사뿐 아니라 어근, 부사어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심지어는 (7나", 7나"")에서처럼 부사절이나 문장 형식일 수도 있다. 이들의 예에서 '이-' 앞의 선행 형식은 임시적으로만 명사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문제의 요소 X 다음에 '(으)로'나 '이-'가 쓰일 수 있다는 사실과 X에 자립성을 부여하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8가, 8나)에서처럼 관형명사 가운데 '에'나 '의'가 통합 가능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 (8) 가. 最近에, 夏季에  
 가'. 겹결에, 내친김에, 단김에, 삼시간에, 훗김에

(13) '이-'를 의존 형용사로 보는 논거는 임홍빈·장소원(1995:232-243)에서 가장 철저하게 밝혀져 있다.

(14) 이 경우의 '(으)로'는 MANNER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DIRECTION이나 INSTRUMENTAL의 의미를 가지면 부사 파생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파생의 개념은 '(으)로'가 구 구성에 붙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 '발작의 연속으로 입원하였다'와 같은 말에서 '연속으로'는 파생 부사로 해석되지 않는다.



- 나. 架空의 固有의 共同의, 別途의, 最大의  
 나. 高度의, 未曾有의, 不屈의, 不朽의, 所記의, 這間의

(8가)에서는 '\*최근이 중요하다.<sup>(15)</sup> \*하계를 기다리다'와 같은 말이 불가능하고 (8나)에서는 '\*고유를 지키다, \*별도를 고찰하다'와 같은 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에'나 '의'가 통합될 수 있는 것을 만약 '명사+조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파악한다면 패러다임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예들은 (8가, 8나)에서의 예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마땅히 김영옥 (1994:108)의 주장처럼 모두 어휘부에 그 모습 그대로 저장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요소 X 다음에 '에'나 '의'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X에 자립성을 부여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관형명사의 문법 범주는 무엇일까? 이제는 김영옥(1994)에서 '관형명사'라고 하여 별다른 논증 없이 '명사'의 일종으로 처리한 이 부류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유어의 문법에 비추어 볼 때 관형명사의 문법 범주로는 첫째로 관형사를 생각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관형명사는 관형사로 보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다음 예를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9) 가. 國際 문제, 國際的 문제, 국제화, 강박감, 모의전, 후속타  
 나. 單一하다, 單純하다, 該當하다, 現存하다

첫째, 관형어적인 쓰임이 그대로 관형사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제 발전'에서 '경제'가 관형어로 쓰인다고 해서 '경제'를 관형사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둘째, 국어의 관형사는 독자적인 품사 체계로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명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이 그대로 굳어져 하나의 품사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볼 때(고신숙 1987:169, 김창섭 1999:21), 이들을 관형사 부류로 넣는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통시대와 공시대를 적절히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지 모른다. 물론 공시적인

(15) 한자 및 한문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최근이 중요하다, 최근을 살펴보다'와 같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 직관으로는 '최근 상황이 중요하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다'처럼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품사 분류에 통시적인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장의 핵심은 고유어의 관형사와 비교를 해 보는 데에 있다. 곧 고유어의 관형사는 통시적으로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백 보 양보하여 공시적으로만 살펴보아도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효인데, 한자어에서는 수많은 형태를 모두 관형사로 인정해도 문법 체계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현대 국어에서 일단 관형사로 된 말은 더 이상 생산적인 과정을 거쳐 다른 한자어 어근과 합성되지 않는다.<sup>(16)</sup> 그러므로 (9가)의 '국제적, 국제성, 국제화, 강박감, 모의전, 후속타'와 같이 생산적인 복합어는 관형사로서는 예외적이라고 기술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다. 더구나 (9나)에서 '하다'를 접미사로 이해하든 용언으로 이해하든, 'X-하다' 유형의 복합어에서 X가 관형사인 경우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문법 체계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의 주장이며 단지 기능적인 면만을 중시한다면 관형사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컨대 Martin(1992:151)에서는 이들 부류를 준관형사(quasi-adnoun)라고 하여 관형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관형명사의 범주에 관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근이다. 이를테면 '國際空港, 單純作業'에서의 '국제, 단순'이라는 말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언뜻 온당해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관형명사는 무제한의 합성어를 만드는 요소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형태론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형명사의 범주에 관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접두사 내지는 접두어근이다. '단순 작업, 단순 계산, 단순 노동, 단순 비교' 등에서의 '單純'도 '신기술, 신여성, 신교육, 신세대'에서의 '新'처럼 접두사 내지는 접두사성 어근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sup>(17)</sup> 그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

(16) 국어의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남한에서는 (문법적) 기능, 형태 (변화), 의미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단어 조성의 공통적 특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조적 기준으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신숙(1987:37)을 참고할 것.

(17) 김창섭(1999)에서는 접두어근(접두사성 어근)과 접두사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新'은 통사적 환경에 따라 관형사로도 쓰일 수 있는 접두어근이다. 흔히 사전에서 편의상 접사라고 기술되는 항목들은 대개 어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하 서술에서는 '접두사'와 '접두어근', '접미사'와 '접미어근'을

다. 곧 1字語에는 접두어근과 접미어근이 둘 다 있는데, 왜 2字語 접두어근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字語 접미어근은 거의 없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sup>(18)</sup> 다시 말해 '참정권'에서의 '-權'과 같은 접미어근은 모두 1字語이므로 만약 2字語 관형명사가 접두어근이라면, 심각한 체계의 불균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접두어근이 아니고 아예 접두사로 보는 것은 더욱 인정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예컨대 '國際的'이라는 말이 두 개의 접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식의 기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형명사를 어근이나 접사로 처리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다. 위의 예 (2)에서 보듯이 '簡易, 救急, 國際'는 모두 통사적 구 구성을 수식할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관형명사가 어근이나 접사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아래 (2')는 (2)에서 관형명사가 통사적 구 구성 전체를 수식하는 예인 '簡易 세금 계산서, 救急 의료 기구, 國際 부인의 날'과 유사한 예를 적어 본 것인데, 만약 여기서 한자로 쓰인 문제의 요소를 어근이나 접사로 규정한다면 국어의 문법 범주론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 (2') 各種 건강 보조 식품, 民選 시의회 의원, 新興 명문 고등학교, 年間 반도체 매출액, 有人 우주 왕복선, 一日 봉사 활동, 自進 세금 납부자, 定期 동호회 모임, 後續 수습 조치

무엇보다도 관형명사를 보면 우리가 어근이나 접사에서 느끼는 어떤 일반

---

구별해서 사용한다. 노명희(1998:68-88)에서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여 접두사와 관련해서는 '접두사, 어근성 접두사, 접두사성 어근, 어근, 관형사, 관형사적 어근, 어근적 관형사'를 구별하고 있고, 접미사와 관련해서는 '접미사, 어근성 접미사, 어근, 어근성 명사, 의존 명사'를 구별하고 있다.

- (18)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관형명사를 접두사(혹은 접두어근)으로 볼 때 생겨나는 의문점이지 관형명사를 접두어근으로 보지 않을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더구나 관형명사가 접두어근이라면 접미어근이라고 할 만한 2 음절 이상의 한자어도 전혀 없지는 않다. 예컨대 '강경 一邊倒'에서의 '일변도', '남자 一色'에서의 '일색', '수륙 兩用'에서의 '양용'과 같은 한자어가 그러하다. 만약 관형명사를 접두어근이라고 한다면 '일변도, 일색, 양용'과 같은 말을 접미어근으로 처리해 볼 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강경 정책 일변도, 서울대 출신 일색, 육전과 해전 양용'에서 보듯이 '일변도, 일색, 양용'은 명사구와 통합 가능하므로 아래의 주장대로 모두 명사의 특수한 부류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적 원형(prototype)보다 단어성이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음절의 수와도 관련이 있고 한자의 뜻을 새길 수 있으므로 의미의 투명성이 높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직관 때문에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는 대부분의 관형명사를 명사로 처리했던 것이다.

관형명사의 범주에 관한 마지막 대안으로 명사밖에 남지 않았다. 관형명사의 세 가지 특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관형명사는 온전한 명사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립 명사라면 조사 결합에 있어서의 극심한 제약은 제쳐두고서라도 그 자체가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 부류에서 선행 성분의 수식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의존 명사가 있듯이, 반드시 다른 명사구를 꾸며 주는 명사 부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요소들을 특수한 부류의 명사(관형명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들을 명사로 보는 것은 앞에서 모든 한자어가 언제나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 사전 기술에서도 이들 요소를 명사로 처리하되 일반적인 명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하여 아래 (10)의 예처럼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sup>(19)</sup> 이때 뜻풀이를 관형사적으로 하느냐 명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세(1998)에서 문법 범주를 형성소로 규정하고 그 뜻풀이를 관형사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품사를 명사로 규정한 이상은 명사적인 뜻풀이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sup>(20)</sup>

- (10) 가. 고공(高空)[명]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적으로만 쓰여) 높은 공중. ㉠고공 낙하/고공 비행/고공 전투/고공 훈련  
 나. 공제(共濟)[명]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적으로만 쓰여)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공제 사업/공제 조합

(19) 『표준』에서조차도 많은 관형명사들이 아무 다른 정보 없이 일반 명사로 처리되어 있다.

(20) 그러나 관형명사가 '에, (으)로, 의' 등의 조사와 통합하면 조사 통합형 전체를 부표제어로 밝혀 줌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국제에, \*국제로, \*국제의, \*간이에, 간이로, \*간이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관형명사가 이들 조사와의 통합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 4. 관형명사 사용의 기제

이제는 '관형명사+명사'의 통사적 구성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제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관형사도 아니고 자립 명사도 아닌 것이 어째서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일만은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문 통사 구성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국어 통사론에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물음의 내용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해답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초보적인 한문 문장을 보자.

(1) 我讀書: 나는 독서한다.

아무리 한문 통사론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국어 통사론 내에서 이 한문 구성을 쓰려고 한다면 이두적으로 "我是 책을 讀한다."라고밖에 말할 길이 없다. 명사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 조사를 통합해야 한다거나 동사는 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국어의 어순에 맞게 써야 한다거나 하는 국어의 형태 규칙, 통사 규칙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관형 구성의 한문 통사 구성이라면 그러한 제약을 모두 피할 수 있다. 즉 한문에서의 관형 구성과 국어에서의 관형 구성은 어순이 같고 국어의 관형사는 불변어이므로 한문 통사 구성을 마치 국어 통사 구성처럼 생각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다면 엄밀히 말해 '관형명사+명사' 구성은 국어 통사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한문 통사론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증명된다.

(2) 가. 재택 근무. \*재택 판매. \*재택 치료. \*재택 학습  
나. 간헐 온천. 간헐 방진. \*간헐 식사. \*간헐 방문  
다. 의법 조치. 의법 행위. ?의법 거래. \*의법 파견  
라. 고공 비행. 고공 낙하. 고공 연습. 고공 전투

위의 예들에서 항목에 따라서 통사적 구를 만드는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국어 통사론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임시방편적인(ad hoc) 설명을 피할 길이 없다. 형태론적 제약은 있을 수 있어도 뚜렷한 이유 없이 통사적으로 결합이 제약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sup>(21)</sup> 통사적 결합 능력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해당 한문 통사 구성이 국어에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은가 혹은 해당 한자어 관형명사가 언중들에게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예컨대 '재택 근무'라는 말은 직장에 출근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이를 만한 '\*재택 학습', 인터넷으로 집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를 이를 만한 '\*재택 판매'는 아직 일반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택 판매'의 對가 되는 '재택 구매'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폭증'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히 익숙한 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 방식은 몇몇 관형명사의 사용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만 유용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 간이'와 같은 관형명사가 의미만 통한다면 어떤 말과도 결합할 수 있음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관형명사가 일정 정도 이상의 생산성을 획득하면 모든 통사적 구성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뿐이다.

논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자어 부사도 살펴보자. '惟獨 생산적이다, 積極 밀어준다, 極口 우기다'<sup>(22)</sup> 따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자어가 형태 변화 없이

(21) '재택 근무, 통원 치료, 단란 주점, 난폭 운전, 난상 토론' 등에서의 '재택, 통원, 단란, 난폭, 난상'은 다른 곳에서 관형명사로 쓰이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은 통사적 구성으로서 다른 결합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관용구로 간주할 수 있다. 혹은 '명사+명사' 구성의 관용구는 합성어로 보아 온 관용에 따라 합성어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첫째로 만약 어떤 화자가 한문 지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들 관형명사는 얼마든지 다른 통사 구성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관용구나 합성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관형명사+명사'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될 뿐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창섭(1999:21)에서는 '單純骨折, 單純勞動'이 의미가 '단순한 골절, 단순한 노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합성어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이 말들에서도 그 의미의 특수화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強制吸煙, 巨大都市, 巨大細胞, 冷血動物, 高等學校, 臨時政府' 등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들을 합성어로 보더라도 본래는 통사적 구였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문 통사 구성이다.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국어의 부사어는 불변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순도 고유어의 '부사어+용언'과 같으므로 한문의 통사 구성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그러나 고유어에서 부사는 '-이, -히, -(으)로'와 같은 접사가 붙어 파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必히 참석하십시오.", "實로 오랜만일세.", "故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보듯이 한자어에서도 '-이, -히, -(으)로'가 붙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實際(로) 그는 교수이다.", "絶對(로) 아니다."에서처럼 '-(으)로'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 5. 관형명사 범주 식별의 실제

위의 논의가 정당하다면 이제 우리는 관형명사 목록을 작성하는 의의를 밝힐 수 있다. 수식하는 선행 관형 성분이 있어야 명사 구실을 하는 특수한 명사 부류(의존 명사)의 목록과 뒤의 명사를 관형적으로 수식하기만 하는 특수한 명사 부류의 목록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외국인 혹은 텍스트에서 나온 한자어를 사전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한자어 어휘력을 키워 나가는 학생이 사전에서 관형명사를 단순히 명사로만 처리한 것을 볼 경우 아무 의심 없이 관형명사를 마치 자립 명사처럼 쓴 통사 구성을 비제약적으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관형명사의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형명사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로 '\*詳細 정보'와 같이 구 구성을 이룰 수 없으면 관형명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이지만 이에는 참으로 어려운 직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필자가 의도적으로 '\*상세 정보'를 예로 든 이유는 많은 공공 기관의 컴퓨터 검색 시스템에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상세 검색'과 같은 말을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는 '\*순간 방심'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서울 인사동의 육교 간판에서는 그 말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亂暴 운전'을 사용하듯이 필자

(22) 여기서의 '적극, 극구'는 부사이지만 뒤에 한자어 명사 나오면(예: 적극 참여를 유도하다, 극구 변명을 늘어놓다) 관형명사로 본다.

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난폭 행동'이나 '\*난폭 강도'를 쓰는 화자가 있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한문 통사 구성이므로 국어 통사론에서처럼 비교적 균질적인 직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문 구성에 관해 전혀 이질적인 직관을 갖고 있는 상이한 화자들 사이의 평균점을 내는 일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예컨대 '순간 방심'이라는 한문 통사 구성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평균점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형명사 문제는 일반적인 경향의 문제이고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 구 구성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우선 필자의 직관에 따랐다. 하지만 '상세 정보'처럼 필자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도 '상세 검색' 따위와 함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면 일단은 구 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선 최대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요소 X가 이를 수 있는 통사적 구의 수효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구성 전체를 합성어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주 2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구성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관형명사+명사'의 통사적 구 구성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이 국어적인 통사 구성이 아니고 한문 통사 구성이라고 판단한 이상은 합성어로 처리해 두는 것이 문법 기술에 경제적이다. 어차피 이 문제는 실용적인 문제이므로 'X+명사' 구성이 단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이 확대될 때, 문제의 요소 X를 관형명사 목록에 추가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13)이 그러한 예인데, 여기에서의 '可算' 등을 관형명사 목록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붙여 씀).

- (13) 可算名詞. 苛酷行爲. 高水敷地. 過當競爭. 既成世代. 既定事實. 緊迫狀況. 卵母細胞. 爛商討論. 亂暴運轉. 團樂酒店. 對症療法. 同位元素. 同好集團. 名勝古蹟. 無賃乘車. 不動姿勢. 射程距離. 小康狀態. 身強四柱. 身弱四柱. 新裝開業. 新陳代謝. 心因反應. 嚴格對位法. 領官將校. 右腕投手. 右越홈런. 尉官將校. 爲樂施設. 有權解析. 遊離乞食. 依願免職. 一方通行. 接物렌즈. 接眼렌즈. 精母細胞. 左腕投手. 左越홈런. 中越홈런. 轉地訓練. 天定配匹. 親衛部隊. 通院治療. 行樂秩序. 挾軌列車. 話用理論. ……

둘째로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면 관형명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예컨대



‘強迫, 公安, 文民’ 따위는 관형명사이기는 하지만 노명희(1998:25)에서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공안을 해치는 행위, 문민이 경찰과 힘을 합치다”에서 보듯이 격 조사와도 통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한자어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에서도 설명한 바대로 특정 문맥이나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예이다. 이러한 예들을 모두 관형명사에서 제외한다면 관형명사 목록에는 0이라는 개수가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어떤 한자, 어떤 한자어라도 ‘矜恤의 마음’에서의 ‘공홀’처럼 잠재적으로 명사로 쓰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조사 ‘(으)로, 에, 의’나 의존 형용사 ‘이-’와의 통합 가능성은 관형명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컨대 ‘高度 기술, \*未曾有 사건, \*不朽 명작, \*不屈 의지, \*這間 사정’은 불가능하고 ‘고도의 기술, 미증유의 사건, 불후의 명작, 불굴의 의지, 저간의 사정’만이 가능하다면 ‘고도, 미증유, 불후, 불굴, 저간’은 관형명사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들은 (8나)의 예들로서 일반적인 불완전 계열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23)</sup> 또 “立錐의 여지가 없다”, “秋毫도 없다”, “頃刻에 달려 있다”, “念頭に 두다” 등에서의 ‘입추, 추호, 경각, 염두’ 등은 관형명사가 아니고 관용구에서만 쓰이는 명사이므로 당연히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관형명사 목록에 속하지만 모두 명세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있다. 이를테면 김영옥(1994:102-104)에서 말하고 있는 접두형, 접미형, 축약형 관형명사류는 다 보이기 어렵다. 곧 다음과 같은 예에서 줄임표 부분은 그야말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4가)는 접두형 관형명사, (14나)는 접미형 관형명사, (14다)는 축약형 관형명사의 예이다.

(14) 가.<sup>(24)</sup> 反國家, 反獨裁, 反美, 反日, 反民族, 反政府, ……; 汎國民, 汎道民, 汎

(23) ‘불완전 계열’에 대해서는 고영근(1987=1989)와 김영옥(1994) 참조.

(24) 김영옥(1994:102)에서는 ‘未轉向, 未提出, 未定, 未執行, 未確認, ……’ 등을 모두 접두형 관형명사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립적인 용법을 갖고 있지 않고 뒤의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 미전향, 서류 미제출, 확정 일자 미정, 판결 미집행, 신원 미확인’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성이 있어 앞에 보충어 명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명사로서의 특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非-’로 시작되는 말도 뒤에 서술

民族, 汎民主, 汎政府, ……; 非規格, 非同盟, 非營利, ……; 對南, 對美, 對北, 對西方, 對外, 對人, ……; 駐美, 駐日, 駐韓, ……

나. 國立, 市立, 道立, ……; 年例, 月例, 週例, ……; 國家別, 男女別, 市別, 道別, 市道別, 軍別, ……; 手狀, 葉狀, 球狀, 環狀, 掌狀, 羽狀, ……; 公的, 感情的, 理性的, ……

다. 農工, 商工, 農商, 農水産, 農畜産, 韓美, 韓佛, ……

위의 (14나)에서 '-的'이 접미형 관형명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이는 '-적'이 붙어 형성된 말을 관형사와 명사로 갈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처리이다. '-적'이 붙은 말이 명사임은 끊임없이 주장되어 온 것인데(김창섭 1984, 임유중 1994, 임홍빈 1987, 이익섭·채완 1999), 예컨대 '국제적 인물'과 '국제적인 인물'에서 같은 형태인 '국제적'을 서로 다른 품사로 규정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마치 '교수 친구'와 '교수인 친구'에서 앞의 교수는 관형사로 규정하고 뒤의 '교수'는 명사로 규정하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매우 고무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 명사이기보다는 관형사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sup>25)</sup>'매우 고무적 발언'이 상당히 어색하고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에서 '고무적'이 관형사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매우 고무적'이라는 언어 형태는 생략의 문맥 이외에는 앞뒤 말과의 통사적 결합이 필요한데, 그 통사적 결합 속에서는 '고무적'이 관형사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 : 울산대학교 한국학센터 강사)

### 〈관형명사 목록〉

架空, 可能,<sup>(25)</sup> 可變, 假死, 加算, 可視, 嘉言, 可逆, 可用, 家電, 家傳, 加重,

성이 있는 명사가 결합되면 앞에 보충어 명사를 취할 수 있을 듯 하지만(예: 협상 내용 비공개), 그러한 일이 '未'에서처럼 뚜렷하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25) '可能'은 뒤의 명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관형명사이지만 앞에 보충어 명사구를 가질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의 보충 명사와 뒤의 피수식 명사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부류로는 '부산 사범 병설 중학교 외무부 산하 기관, 교통부 부설 기관, 경희대 부속 고등학교, 대통령 직속

加增, 加採, 可聽, 各個, 各種, 簡易, 間接, 間歇, 強硬, 強大, 強力, 強迫, 強性, 強制, 個別, 客員, 舉國, 巨大, 巨視, 健全, 激烈, 缺格, 決死, 缺食, 敬老, 警務, 經常, 高價, 高架, 高空, 高等, 固有, 固形, 公共, 共同, 公立, 公明, 共產, 工產, 公式,<sup>(26)</sup> 公安, 公正, 共濟, 共通, 共和, 過大, 誇大, 過渡, 過小, 官邊, 官選, 官治, 冠形, 寬勳,<sup>(27)</sup> 怪奇, 交錯, 救急, 球狀, 國公立, 國立, 國務, 國選, 國定, 國際, 國策, 群小, 闕席, 闕食, 均等, 均一, 均質, 極口, 極大, 極東, 極力, 極烈, 極小, 極限, 近衛, 近接, 急進, 基督, 機動, 起立, 騎馬, 祈福, 既存, 緊急, 拮抗, 落後, 難治, 男超, 納涼, 耐久, 內在, 冷血, 勞農, 老廢, 老朽, 綠化, 農工, 農林, 農產, 農水產, 農畜產, 多國間, 多連發, 多者間, 多重, 多品種, 單科, 單獨, 單純, 單一, 短資, 當面, 當座, 當該, 大舉,<sup>(28)</sup> 對空, 對共, 對南, 對內, 對等, 對物, 對美, 對民, 對北, 對眼, 對外, 代議, 對人, 對日, 大幅,<sup>(29)</sup> 大韓, 突出, 冬季, 冬期, 同一, 同質, 磨製, 萬年, 名門, 模擬, 無期, 無機, 無名, 無法, 無產, 無性, 無人, 無賃, 無政府, 無限, 武俠, 無血, 文教, 文民, 美, 未開, 微細, 微小, 微少, 未熟練, 微視, 未知, 未就學, 民選, 民營, 敏腕, 民主, 反國家, 反獨裁, 反美, 反民族,

기관, 교육부 유관 기관, 인구 과밀/과소 지역, 신경 과민 반응, 시멘트 과적 차량, 버스 전용 도로, 수륙 양용 장갑차, 100V/200V 겸용 기구, 컴퓨터 전문 교육 기관' 등에서의 '併設, 傘下, 附設, 附屬, 直屬, 有關, 過密/過少, 過敏, 過積, 專用, 兩用, 兼用, 專門' 등을 들 수 있다. 관형명사는 그 앞에 아무런 관형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형명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형명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자료 제시의 의미에서 '가능' 하나만을 보이기로 한다.

(26) '수학 공식'에서의 '공식'은 자립명사이지만, '공식 입장'에서의 '공식'은 관형명사이다.

(27) '寬勳'이 쓰인 '관훈 클럽'은 신문인의 친목과 언론의 창달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서 창립되었다. 이런 예에서 볼 때, '洞 이름이나 학교 이름 따위는 모두 관형명사이다. '아현 지점, 수유 전철역, 돈암 파출소, 신길 재활용 센터, 연세 우유, 서울 법대, 성심 어문논집' 등에서의 '아현, 수유, 돈암, 신길, 연세, 서울('서울대'의 뜻), 성심'은 자립적인 용법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단음절의 동 이름은 관형명사가 되지 못하는바, '\*필 지점, \*재 파출소'라는 말은 불가능하고 '필동 지점, 재동 파출소'라는 말만이 가능하다. 이 목록에서는 동 이름, 학교 이름을 모두 밝히지 않고 '관훈'만을 예로 제시하였다.

(28) 부사적 용법이 있음.

(29) 부사적 용법이 있음.

反戰, 反政府, 汎國民, 汎道民, 凡民族, 汎民主, 汎用, 法定, 別途, 複合, 本格, 封建, 不當, 附帶, 不動, 附隨, 不可算, 不健全, 不買, 不法, 不變, 不燃, 不穩, 不遇, 非可視, 非公開, 非同盟, 非武裝, 非民主, 非保護, 非生產, 非營利, 貧富, 師範,<sup>(30)</sup> 私有, 射程, 傘下, 三重, 商工, 相當, 相補, 常設, 詳細, 常習, 常用, 傷痕, 上向, 相互, 先發, 先史, 先任, 先進, 先行, 消極, 消防, 手動, 水產, 修習, 瞬間, 純粹, 市立, 市別, 市營, 時限附, 植民, 慎重, 新進, 新興, 實用, 惡德, 弱小, 兩大, 養護, 良好, 女超, 歷代, 驛傳, 年間, 年例, 劣等, 葉狀, 永久, 永世, 豫備, 豫行, 穩健, 溫血, 完璧, 完全, 緩衝, 外來, 要視察, 料食, 要式, 要注意, 優良, 偶發, 虞犯, 羽狀, 優秀, 優越, 右前, 遠隔, 原始, 月刊, 月例, 月定, 危急, 有期, 有機, 有毒, 流動, 有力, 有望, 有名, 唯物, 有產, 油性, 有性, 有人, 有限, 有閑, 有害, 流血, 宥和, 有效, 遊休, 依法, 擬似, 依願, 二重, 異質, 人空, 隣接, 人造, 日刊, 一個, 一括, 一級, 一大, 一日, 一定, 一齊, 臨界, 林產, 臨時,<sup>(31)</sup> 臨地, 自記, 自動, 自進, 殘留, 殘餘, 暫定, 獎學, 在京, 在美, 在席, 在位, 在任, 在日, 在籍, 在宅, 低價, 低開發, 低空, 低公害, 著名, 低學力, 積極, 適法, 適正, 電擊, 電動, 專門, 定規, 定期, 精密, 定言, 正統, 諸般, 早期, 早起, 終身, 左前, 主力, 駐美, 主要, 駐韓, 中價, 重大, 中產, 中小, 重要, 中前, 即刻, 即興, 至上, 直立, 直接, 天然, 徹夜, 鐵血, 清淨, 初벌, 最近,<sup>(32)</sup> 最大, 最小, 最新, 最終, 秋季, 春季, 充分, 就勞, 親러, 親日, 打製, 土木, 土着, 統辭, 通俗, 特級, 特別, 特設, 特殊, 特異, 特定, 葡萄狀, 夏季, 下等, 下向, 學術, 韓佛, 限時, 合法, 該當, 害黨, 行旅, 懸賞, 現用, 現傳, 現存, 現行, 豪華, 婚外, 環狀, 後發, 後進,<sup>(33)</sup> 後行, 吸濕, 吸熱, 稀貴, 稀少, 稀有

(30) 현대국어에서 '師範'은 무술이나 바둑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쓰일 뿐 일반적인 스승의 의미로 쓰이지 않으므로 관형명사로 보아야 한다.

(31) '임시정부'는 특수한 의미로 합성어화된 것으로 여겨짐.

(32) 조사 '에'가 붙어 '최근에'라는 부사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조사 '에'가 붙지 않는 형태도 부사로 쓰이므로 관형명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시간 표현은 예외로 두는 것이 옳을 듯하다.

(33) '뒤로 이동하다'의 뜻인 '후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참 고 문 헌〉

- 고신숙(1987), *조선어 이론문법(품사론)*, 과학·백과사전 출판사(탑출판사 영인).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소령(2000), *국어 명사구의 관형명사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규철(1997), 한자어의 단어 형성, *국어학* 29, 태학사.
- 김영옥(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태학사.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이병근·채완·김창섭 편(1993)에 재수록됨)
- 김창섭(1990), 영파생과 의미전이, *주시경학보* 5, 탑출판사.
-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병근·채완·김창섭(1993), 『형태』, 태학사.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송녕박사 송수기념논총.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임유중(1994), '적'의 통사와 의미 특성, *한국학논집* 25, 한양대.
- 임홍빈(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 Baayen, H.(1989), *A Corpus-Based Approach to Morphological Productivity: Statistical Analysis and Psycholinguistic Interpretation*. Dissertation, Free Univerdity, Amsterdam.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h, B. & G. L. Trager(1942),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ockett, C.(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Lieber, R.(1993),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 Martin, S.(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Charles E. Tuttle Company.

## 국문초록

##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李 善 雄

국어의 한자어에는 명사 앞에서 관형어적으로만 쓰이는 언어 형식이 있는데, 이 언어 형식은 그 자신은 자립적이지 않아 조사 따위가 통합되어 쓰일 수 없고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비자립적이라고 여겨지는 한자어도 언제든지 자립적인 용법을 획득할 수 있는 사실, 문제의 언어 형식이 수식하는 말이 구 구성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 언제나 수식어가 필요한 의존 명사가 있듯이 언제나 뒤의 명사를 수식하기만 하는 명사도 자연스럽게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의 언어 형식은 특수한 부류의 명사로 봄이 가장 타당한바, 이를 '관형명사'로 부를 수 있다. 관형명사 부류는 한문의 통사 구성이 그대로 국어의 통사 구성에서 쓰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다. '관형어+명사'로 이루어진 한문의 통사 구성이 그대로 국어의 통사 구성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한문에서의 관형 구성과 국어에서의 관형 구성은 어순이 같고 한문과 국어의 관형사는 모두 불변어이기 때문이다.

<Abstract>

## On Sino-Korean 'Adnominal Noun'

Yi, Sun-Woong

In Sino-Korean there are linguistic forms which are used only adnominally before nouns. As these linguistic forms are not independent, so these are not combined with case markers or delimiters and not modified by adnouns. Taking the fact that even dependent Sino-Korean words can have independent usage anytime, the fact that the words which the linguistic forms in question modify are easily extended into syntactic phrase structures and the fact that it is natural that we assume there are 'always modifying' nouns as 'always modified' nouns into consideration, it is most reasonable to consider the linguistic forms as a special sort of noun, that is 'Adnominal Noun'. The category 'adnominal nouns' are derived from the course that syntactic structures of old written Chinese are used with original forms in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The reasons why 'adnoun+noun' structures of old written Chinese can be used as those of Korean are that in adnominal structures the word orders of old written Chinese and Korean are the same and that adnouns of Korean and old written Chinese are of uninflected forms in common.